

목포,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강화

50명 이상 근무 업체 등 요청시 방문 검사

권역별 검사소 운영...거리두기 강화 시행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종식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하며 주말 동안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다음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방역 강화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도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목포에서는 지난 13~14일 2만 7,812명(선제검사 2만 375명 포함)이 검사에 참여했는데 확진자는 14일 86명(첫째날 선제검사 44명 포함)이, 15일 78명(둘째날

선제검사 40명 포함)이 각각 발생했다.

선제 검사를 분석한 결과 용당1동, 만호동, 동명동에서는 선원과 유흥업소 등의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부주동과 이로동은 가족집단 감염과 지인에 의한 추가 전파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간의 선제 검사로 확진자 다수를 발굴했으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사와 잠시 멈춤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 평화광장 등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

오래 대기하는 불편 해소와 검사를 위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검사소를 권역별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원도심에는 기존 보건소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목상고에 전남 행복버스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17일부터는 검사를 요청하는 외국인 다수 근무업체, 집단시설 등에 대해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를 운영한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원의 선제 검사를 위해 삼학도의 한국섬진흥원 인근에도 검사소 설치를 전남도와 협의 중이다.

신도심권은 기존 평화광장 검사소를 지속 운영하는데 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아 검체인력을 늘린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파악된 선원에 대해서는 해경, 수

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입출항 어선 통지, 선주별 1대1 직원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PCR 검사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가진단키트 등을 보급해 광범위한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가운데 목포를 포함 나주·영암·나주 등의 사적모임 제한인원은 최대 4명으로 유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불가피하게 유지됐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하루라도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춤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열린 행정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 모색”

최신남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취임

최신남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이 최근 취임했다.

최 신임 지사장은 해남 출신으로 지난 1991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충북지역본부 환경사업부장, 본사 지하수지질처 지하수관리부장, 해남완도지사 수자원관리부장, 전남지역본부 환경지질부장을 역임했다.

최신남 지사장은 취임사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모색하고 농어업인과 함께 항상 열린 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서로 아끼고 도우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무안,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 구성...시행사업 발굴 등 논의

무안군이 오는 2023년 1월 시행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를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회계과장 주관 아래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팀장 17명이 머리를 맞대 기부금 모금·홍보,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기부금이 사용될 시행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분권의 첫 번째 조건인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실무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향과 농어촌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부제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고려청자박물관, 12억 투입 스마트박물관 조성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박물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되며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과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은 고려청자 제작, 무역·항해, 발굴, 보존·전시 전 과정을 모티브로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VR을 통한 몰입체험, 코일 썰기, 문양 그리기 등 가상체험존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으로는 AI 관

람안내 시스템과 가상박물관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추진된다. AI 관람안내는 관람객의 연령대에 맞는 관람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객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가상박물관 시스템은 원격지에서도 고려청자박물관의 전시실 공간을 관람하고 유물을 확대, 축소, 회전 등 움직이면서 만져보고, 쿼즈형 학습기능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전시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국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강진의 대표 콘텐츠인 고려청자에 첨단 기술 도입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해남 우수영 관광지 무휴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랑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우수영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대거 늘어난데 따라 우수영 관광지도 쉬는 날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우수영 관광지는 매주 월요일 명랑대첩 해전사 전시관 등 시설 운영을 휴무해 왔다.

지난해 9월 울돌목 스카이워크와 명랑해상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연말 기준 우수영 관광지 입장객은 4만 2,71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만 4,91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민간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명랑해상케이블카도 유료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올 1월에는 우수영 문화마을 법정스님 생가에 마을도서관이 임시 개관하는 등 우수영 관광지의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우수영 관광지 연중 운영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강진군 오명택씨 농가에서 레드향을 수확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새콤달콤’ 강진 레드향 맛 보세요

수확 본격화 농가소득 기대

강진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작물로 생산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레드향’ 수확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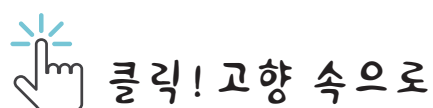
‘레드향’은 일본에서 만든 만감류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재배가 시작했다.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 적절한 산도를 함께 맛볼 수 있어 겨

울철 제철 과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서는 점차 아열대화 돼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노동 절감형 유망과수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레드향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관내에서 13농가, 4.2ha에서 재배 하고 있으며 재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탐진향’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통일된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강진군은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많아 시설 하우스 재배로 온도관리가 수월해 강진 ‘탐진향’이 당도가 높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열대과수 연구회를 만들어 애플망고, 만감류 등 아열대 과수를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있다”며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

무안군 복지기동대는 최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동이 불편한 관내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복현 복지기동대장은 “추운 날씨로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싶어 발 빠르게 움직였다”며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음에도 홀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 도갑사, 식료품 세트 기탁

영암군은 최근 도갑사 주지 수관스님과 도갑사 총신도회(정찬회 회장) 회원들이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100상자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수관 주지스님은 “임인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산과 한파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 것 같아 기탁을 결심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좋은 곳에 쓰였

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성품은 영암군 11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추천을 받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완도해경, 민·관 합동 소화훈련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해남군 어란항에서 정박어선 화재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해남소방서·경찰서, 송지면사무소, 민간해양구조대와 함께 민·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간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했으며 완도해경 땅끝파출소 연안구조정 1척, 소방차 1대, 119구급

차 1대, 경찰서 순찰차 1대,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 등 총 40여명을 동원해 긴급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합동 화재진압 등을 진행했다.

오명일 땅끝파출소장은 “동절기 선박 화재사고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